Eugene Daily Snapshot

외국인 매도 일단락, 양대 지수 +4% 급등

유진투자증권
2026.11.11

글로벌 매크로팀 이준영_02)368-6136_lee.jy@eugenefn.com

주식 ('26. 11. 10)

(단위: pt, %)

		종가	1D	1W	1M	YTD
한국	KOSPI	5,239.13	4.4	-7.3	-20.9	24.3
	KOSDAQ	667.61	4.5	-5.2	-25.2	-27.9
미국	S&P500	7,520.93	-0.4	-0.6	-3.7	9.9
	NASDAQ	25,065.87	-0.7	-1.2	-8.4	7.8
	필라델피아 반도체	9,998.33	-0.4	-5.7	-20.5	41.2
유럽	EUROSTOXX50	6,327.87	0.6	3.0	2.5	9.3
	독일 DAX40	26,347.45	0.3	1.9	5.0	7.6
아시아	일본 NIKKEI225	60,459.58	2.9	-4.2	-12.4	20.1
	대만 가권	42,711.92	2.5	-1.4	-13.4	47.5

채권

(단위: %, b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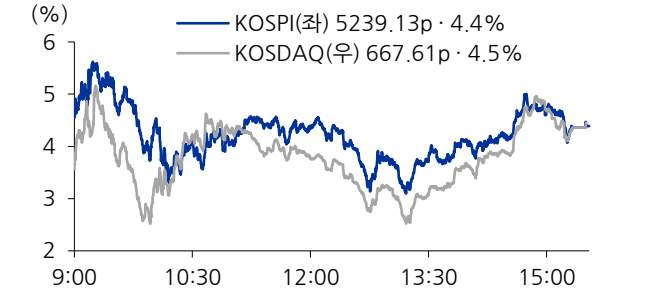
		종가	1D	1W	1M	YTD
한국	국고채 3 년물	3.74	2.5	-4.9	-19.7	78.7
	국고채 10 년물	4.03	2.6	-4.0	-33.1	64.9
미국	미국채 2 년물	4.74	17.5	10.8	-4.9	126.4
	미국채 10 년물	4.99	10.7	2.4	-24.7	81.8
	미국채 30 년물	5.36	7.5	2.3	-24.4	51.2
	NVDA CDS 5 년물	141.27	3.3	-0.6	54.9	99.5
	ORCL CDS 5 년물	303.41	3.6	10.9	47.4	159.8

환율 및 원자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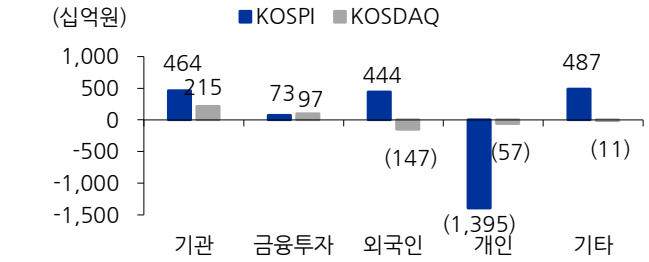
(단위: %)

		종가	1D	1W	1M	YTD
환율	원/달러(원)	1,337.50	-0.7	-0.3	-0.4	-7.1
	달러지수(pt)	102.23	0.6	0.4	0.0	4.0
원자재	WTI 연결물($)	86.51	-0.4	-10.0	-5.8	50.7
	금 연결물($)	4,039.30	-1.8	2.5	-4.2	-7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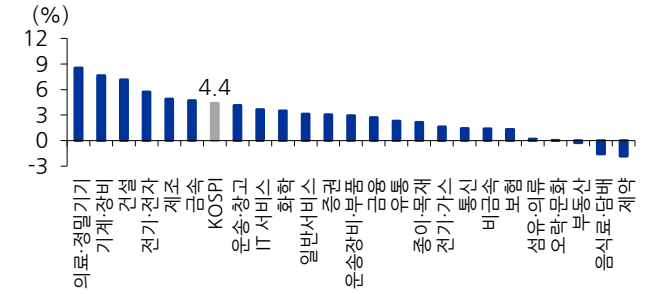
KOSPI · KOSDAQ 일중 등락률 추이 ('26. 11. 10)



투자자별 일간 수급 동향 (KRX 애프터마켓 포함)



KOSPI 일간 업종별 수익률 ('26. 11.10)



간밤 해외 증시

근원 CPI 3 개월 연속 0.3% & 美 10 년물 장중 5% 재돌파

- **뉴욕증시 3대 지수는** 10월 CPI 예상 상회 & 월러 이사 빅스텝 시사 → 국채금리 급등에 하락. 다우 -0.3%·S&P500 -0.4%·나스닥 -0.7%, 필라델피아 반도체 -0.4%.
- 10월 CPI 전월비 +0.4%(예상 0.3%·9월 0.6%), 근원 CPI +0.3%(예상 0.2%)로 8월부터 3개월 연속 +0.3% 상승, 12월 빅스텝(0.5%p 인상) 경계 확산. 품목별로는 주거비(+0.3%)가 전체 상승분의 30% 기여.
- **월러 연준 이사는 CPI 발표 전 런던 BOE 콘퍼런스에서 12월 FOMC 최소 0.25%p 인상 지지 입장**을 밝히는 한편, 근원 CPI가 0.3% 안팎 이상이면 더 강한 정책 대응이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. 발표치가 해당 조건에 부합하며 빅스텝 논의 점화.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현 정책금리가 제약적 수준 대비 최소 0.5%p 낮다고 발언. **CME FedWatch는 12월 인상 확률 100%(0.25%p 90.8%·0.5%p 9.2%) 반영, 0.5%p 확률은 전일 0%에서 상승.**
- **엔비디아(-5.5%)는 젠슨 황 CEO 관련 스캔들·이사회 독립조사 여파로 이틀째 하락, 국채금리 상승도 부담.** SK하이닉스 ADR(-3.5%)·인텔(-2.1%)·마이크론(-1.1%) 약세.
- 빅테크는 아마존(+1.5%)·테슬라(+0.5%) 상승, 마이크로소프트(-2.2%) 하락으로 혼조. **필수소비(달러트리 +2.6%), 헬스케어(CVS 헬스 +4.4%) 등 방어업종도 견조.**
-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CPI 발표 직후 장중 5.02%까지 급등한 뒤 4.99%(+10.7bp) 마감, 2년물 4.74%(+17.5bp)·30년물 5.36%(+7.5bp). 금은 장기금리 상승에 매도세 유입되며 급락(연결물 -1.8%, $4,039.30), 국제유가 소폭 하락(WTI 연결물 -0.4%, $86.51). **금일 미 채권시장은 베테랑스데이로 휴장.**

전일 국내 증시

외국인 8 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 & 코스피 4.4% 급반등

- **국내 양대 증시는** 반도체 대형주 중심 저가 매수 유입 & 외국인 순매수 전환에 급등**(코스피 +4.4%·코스닥 +4.5%).** 장 초반 양 시장 동시 매수 사이드카 발동(올해 9번째). 코스피는 장중 5,300.92(+5.6%)까지 오른 뒤 상승폭 일부 반납했으나 4거래일 만에 반등. 종가 5,239p로 5,200선 회복.
- 1)반도체 급반등. 11/9 美 상원 에너지 인프라 인허가 간소화법(BAAJA) 절차표결 통과(73-25) & 필 반도체 +6.9% 급등. 우호적 투심 이어지며 SK하이닉스(+6.7%)·삼성전자(+4.7%) 강세. 이오테크닉스(+14.5%)·주성엔지니어링(+7.5%) 등 반도체 소부장도 상승.
- 2)항공·낙폭과대 급등. **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추가 공격 자제 발언으로 국제유가 급락(WTI 연결물 -4.5%),** 유류비 부담 완화 기대에 진에어·대한항공우 상한가, 대한항공·아시아나항공은 52주 신고가. **전일 급락했던 2차전지·바이오도 에코프로(+10.2%)·알테오젠(+4.7%).**
- 코스피 외국인(+4,439억원)·기관(+4,642억원) vs 개인(-1조3,947억원), 외국인 8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. 코스닥 기관(+2,147억원) vs 외국인(-1,474억원)·개인(-567억원).
- **여타 아시아 증시도 테크주 주도로 닛케이225(+2.9%)·대만 가권(+2.5%) 이틀 연속 상승.** 닛케이는 종가 기준 6만선 회복, **TSMC(+2.2%)는 10월 매출 사상 최대(YoY +59.7%) 발표.**

주: 한국시간 오전 7시 · KRX 정규장 기준 자료 출처: 코스콤, Quantiwise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Eugene Daily Snapshot

업종 및 특이 테마 동향

낙폭과대 급반등, 내수방어 업종은 약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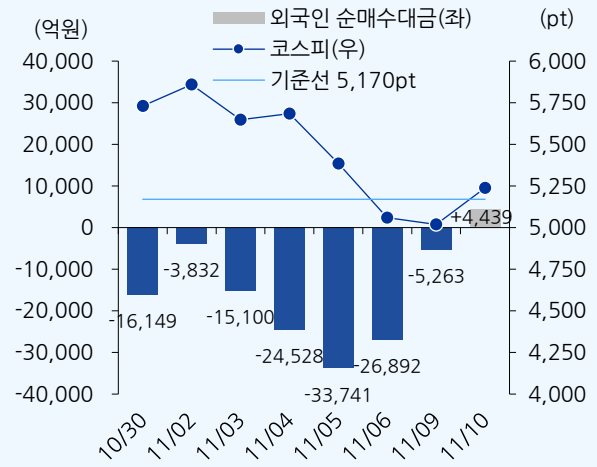
- 반도체·전력기기·2차전지 강세 ↔ 필수소비·제약 등 내수방어 업종 약세. 美 반도체주 급등(필라델피아 반도체 +6.9%) & 유가 하락에 최근 3거래일 낙폭이 컸던 업종 저가매수.
- (AI 밸류체인) **대형주(SK하이닉스 +6.7%·삼성전자 +4.7%) 반등, 장비**(한미반도체 +7.9%·이오테크닉스 +14.5%)·**부품**(삼성전기 +4.6%·대덕전자 +6.4%)으로 상승세 확산. **통신장비**(RFHIC +19.2%·대한광통신 +9.0%)는 이틀째 급등.
- (전력·인프라) **전력기기**(효성중공업 +12.7%·HD현대일렉트릭 +10.7%)·**전선**(가온전선 +16.5%·대한전선 +8.3%) 급등. **원전**(두산에너빌리티 +8.3%·비에이치아이 +8.2%).
- (산업재·소재) **2차전지**(삼성SDI +9.9%·포스코퓨처엠 +10.0%)는 하루 만에 반등. **방산**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(+14.1%)가 전일 낙폭(-8.9%) 회복, 한화시스템(+9.0%). 트럼프의 분쟁 종식 언급에 **건설**(현대건설 +12.0%·DL이앤씨 +10.5%)도 상승.
- (내수방어) **필수소비**(롯데칠성 -7.5%·KT&G -3.7%)·**제약바이오**(셀트리온 -3.3%·삼성바이오로직스 -2.8%)는 지수 급등에도 하락.
- (코스닥) **반도체 소부장**(SFA반도체 +13.2%·주성엔지니어링 +7.5%)·**로봇**(레인보우로보틱스 +7.4%·로보티즈 +7.3%) 강세, **2차전지**(에코프로 +10.2%·에코프로비엠 +8.7%)·**제약바이오**(삼천당제약 +5.6%·알테오젠 +4.7%)도 반등.

오늘의 클로즈업

5,170pt에서 확인할 외국인 매수의 지속성

- 11/9 코스피는 장중 5,173pt까지 반등했으나 상승분을 반납하며 5,019pt로 마감. 11/10에는 5,175pt에서 저점을 형성한 뒤 4.4% 오른 5,239pt로 마감. **전일 고점 바로 위에서 다음 날 저점이 만들어진 5,170pt대에서는 조정 시 매수세 재유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.** VKOSPI도 63.93에서 58.19로 하락해 이번 반등에는 옵션시장의 기대 변동성 완화가 동반됨.
- **11/10 수급의 변화는 코스피에서 기관 매수에 외국인이 동참했다는 점.** 외국인은 8거래일 만에 순매수(4,439억원)로 전환했으나, 규모는 직전 7거래일 누적 순매도(12.6조원)의 3.5%에 불과. 코스닥은 4.5% 반등했지만 기관 순매수(2,147억원)에도 외국인은 1,474억원 순매도를 지속. 양 시장 반등 폭은 비슷했으나 외국인 수급 개선은 코스피에 국한.
- **업종별로는 반도체 대형주를 조정 시 우선 매수 대상으로 판단. 삼성전자·SK하이닉스는 9일 지수 하락에도 상승 마감했고, 10일에는 외국인·기관 합산 순매수 1·2위를 기록.** 반면 삼성SDI는 10일 +9.9% 급등했으나 전일 낙폭(-11.3%)을 감안한 이틀 누적 수익률은 -2.6%. 급반등 종목으로 비중을 늘리기보다 다음 조정에서도 **외국인·기관 매수가 이어지는 종목부터 분할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.**

코스피 5,170pt 공방과 외국인 순매수



증시 자금 동향

(단위: 조원)

		11/9 일	1D	1W	1M
고객예탁금		88.3	-2.08	-2.21	-11.86
신용잔고	거래소	21.4	-0.21	-0.73	-4.45
	코스닥	6.2	-0.11	-0.43	-1.28
수익증권	주식형(전체)	289.6	0.12	108.49	89.69
	채권형(전체)	220.4	-0.20	12.44	15.57
MMF		277.9	-0.95	5.18	17.68

KOSPI 52 주 신고가 · 신저가

52 주 신고가 (8 종목)		52 주 신저가 (21 종목)	
NHN	▲2.4	한전 KPS	▼7
아시아나 IDT	▲1.8	ESR 켄달스퀘어리츠	▼2.7
한진칼	▲1.1	하이트진로홀딩스우	▼2.6
진에어	▼0.7	한국제지	▼2.6
대한항공우	▼0.7	유엔젤	▼2.5
아시아나항공	▼1.1	GKL	▼2
제주항공	▼1.8	케이아이이	▼2
대한항공	▼2.5	대신증권	▼1.9
		한화 3 우 B	▼1.9
		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	▼1.2

KOSPI 기관/외국인 합산 순매수 상위 종목

순위	종목명	종가(원)	등락률	대금(억원)
1	삼성전자	198,900	▲4.7	1,300
2	SK 하이닉스	1,212,000	▲6.7	1,116
3	삼성 SDI	456,000	▲9.9	1,104
4	대한항공	32,450	▲11.5	1,066
5	NAVER	193,000	▲3.2	690
6	삼성전기	882,000	▲4.6	401
7	효성중공업	1,746,000	▲12.7	384
8	두산에너빌리티	46,950	▲8.3	245
9	포스코퓨처엠	169,000	▲10	245
10	삼성중공업	16,450	▲7.4	235